

국민연금, 2027년부터 적자전환... 2055년엔 '고갈 위기'

3년 뒤 보험료 수입으로 감당 불가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로 수급자 늘어
2027년에는 3조3000억 적자 전망
전문가들 "보험료율·수급 연령 상향"

오는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1세대 가입자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퇴직하면서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는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우려적인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오는 2027년에는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뉴시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2205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5만명으로 50만명 감소하는 반면, 736만명이었던 수급자는 917만명으로 181만명 늘어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도 평균 연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지 적자가 곧바로 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는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55년부터는 기금이 전부 소진돼, 부족분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면 2063년, 15%로 인상하면 2071년, 18%로 인상하면 2082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수명이 2020년 83.5세까지 늘었고, 오는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시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개혁 방향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최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구조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여당

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개혁하는 야당 간의 견해차가 분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제도 존속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선 OECD 최저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통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수급 연령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민 확대를 통해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숙련자 중심의 이민을 확대하고, 열악한 저숙련 이민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갤S24 울트라로 센강 개막식 생중계... 상젤리제션 신형 체험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80척 배에 갤럭시S24 울트라 200대 동원
역대 최대규모 '팀 삼성 갤럭시' 꾸려
상젤리제 체험관서 즉석인화 이벤트

“40년 가까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한 삼성전자는 수많은 올림픽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모바일 AI와 함께 수많은 '최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삼성전자가 대거 장식한다. 센강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 갤럭시 S24 제품으로 올림픽 생중계를 선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팀 삼성 갤럭시(Team Samsung Galaxy)' 선수단을 꾸리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선수들은 자신의 수상 장면을 직접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 갤럭시 S24, 센강에서 올림픽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야외에 위치한 센강(Seine River)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제품으로 새로운 올림픽 중계를 선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 박정미 상무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의 올림픽 파트너십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 박정미 상무는 “현장감 있게 중계하기 위해 약 80척의 배에 갤럭시S24 울트라 제품 200대 이상을 동원한다”며 “특히 센강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떤 기상 조건에도 연결을 유지하고,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전 테스트와 연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부터 2024 파



(위쪽부터) 삼성전자 올림픽 체험관에서 갤럭시 Z플립6를 활용해 촬영한 즉석 사진과 스트랩 만들기 체험존에서 만든 스트랩. /구남영 기자

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 이에 IOC는 역사상 최초로 삼성전자가 지급한 선수용 폰에 한해 선수들이 수상 장면을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선수가 직접 찍은 수상 장면은 올림픽 방송 서비스(OBS)를 통해 송출됨으로써 전 세계 올림픽 시청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올림픽 홍보대사인 '팀 삼성 갤럭시(Team Samsung Galaxy)' 선수단을 구성했다. 팀 삼성 갤럭시는 24개국, 63명으로 구성됐으며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다.

대한민국 선수는 신유빈(탁구), 김예리(브레이킹), 서채현(스포츠 클라이밍) 등이 포함됐다. 해외 선수는 요한 디페이(프랑스, 서핑), 스카이 브라운(영국, 스케이트보드), 그레이스 씨니 최(미국, 브레이킹) 등이 명단에 올랐다.

◆“파리 시민도 삼성 즐기세요”

삼성전자는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삼성 체험관을 꾸리고 파리 시민들의 일상에도 녹여준다.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삼성 체험관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과의 디자인 협업을 통해 구축됐다.

체험관은 여행을 테마로 한 시원한 파란색으로 디자인됐다. 입구에는 삼성전자가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부터 올림픽 파트너로 참여한 만큼, 입구에는 올림픽이 열렸던 해에 판매됐던 휴대전화 전시됐다.

특히 이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갤럭시 Z플립6를 이용해 셀프 사진을 찍고 이를 즉석 인화해주는 행사였다. 캐리어 가방 형태로 디자인된 카메라 거치대 위에는 갤럭시 Z 플립 6가 놓여있었다.

관람객은 해당 갤럭시 Z플립 6의 '오토 줌' 기능을 활용해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최적의 사진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손바닥을 펴면 자동 촬영이 가능했다. 특히 사진을 찍은 후에는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Phryge)'를 삽입해 화면을 꾸밀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형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플립6' 등이 배치돼 자유롭게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전시 공간 옆에는 이번 갤럭시 Z6 폴더블폰에 새로 탑재된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화면에 나오는 AI인간을 통해 대화할 수 있었으며, 질문을 하면 번역된 텍스트와 음성지원을 통해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다. 기자가 화면 앞에 설치된 폴드6 폰을 통해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몇명이 방문할 것 같나요?”라고 질문하니 화면에 나온 AI인간은 “1500만명이상이 방문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최대 110% 완화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면 개정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1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

에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준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

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시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적률 규정과 주문배송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준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hjk@